

“淸淨 포천주말농장으로 오세요”

올 가을 옥수수, 감자, 고구마 축제 계획

포천시 선단동 235-2번지 일대에 주말농장을 분양하고 있는 포천주말농장(대표 이상목, 소장 이광호)에서는 주말에 가족단위로 와 풀을 뜯고 직접 과일과 고추 등을 재배

하고 있다. 9천800평의 부지중 현재 4천여평에 각종 야채류를 심어놓고 있다. 오는 가을에는 옥수수, 감자, 고구마 축제를 계획하고 있다. 도심에서 벗어나 탁 트인 농장에



서 오이, 고추, 호박, 감자, 옥수수, 토마토를 직접 심고 가꾸고 있다.

현재 150구좌를 분양했으며 1년 1구좌 당 관리비 5만원을 받고 있으며 1구좌당 5평이지만 실제로는 7평정도 된다.

본인이 원하는 것을 심고 지하수를 개발해 물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여름철에는 아열장도 만들 계획으로 있으며 회원들이 원하면 숙박할 수 있도록 지도 빌려줄 계획이다.

주요 농장 시설은 주말농장, 휴게실, 화장실, 주차장, 그늘막, 수도 시설, 체험장, 비베류장, 아열장이 있으며 분양기간은 매년 초부터 농장 마감일까지다.

모종, 씨앗은 별도 판매하고 있으며 주말농장 분양신청 방법은 전화와 인터넷, 농장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주말농장 소장(017-332-5436)에게 하면 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시 농사정보 ③

7월 중순 농사정보

이삭거름은 어린이삭의 크기가 1~1.5mm 정도 자랐을 때

1. 벼농사

가. 본 논 관리

▶일찍 심어 이삭이 팥 시기가 된 조·중생종 벼는 지금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이므로 논물이 마르지 않도록 대어 주어야 한다.

▶이삭거름은 어린 이삭의 크기가 1~1.5mm 정도 자랐을 때(이삭패기 전 25일경) 이삭거름 N-K복합비료(18-0-18)의 경우 10a당 11~12kg을 주도록 한다.

▶거름기가 많은 논, 잎도열병이 발생한 논이나 이삭거름 주는 시기에 비가 자주 올 경우에는 질소질 거름은 주지 않고 칼리질 비료는 주도록 한다.

나. 병해충 방제

▶벼의 잎색이 검고 아침 이슬에 잎이 늘어지는 조생종 재배 논은 침투이행성 도열병 약제를 뿌려 병 발생을 예방하도록 한다.

▶비료를 많이 준 논이나 도열병에 약한 품종을 재배하는 논에 병 무늬가 보이면 서둘러 알맞은 약제를 선택하여 뿌려 주도록 한다.

▶잎집무늬마름병 발생이 시작되는 시기로 모내기를 일찍 하여 새끼를 많이 친 논은 벼 줄기 아래쪽을 살펴봐 병든 줄기가 보이면 잎도열병과 동시에 방제토록 한다.

2. 밭농사

▶밭작물 포장은 물이 잠빠지도록 하여 습해를 예방하고, 습해를 받았거나 생육이 부진한 포장은 요소염면시비(참깨 0.2%, 팥콩 0.4%)를 해주어 생육을 촉진시키도록 한다.

▶참깨의 돌립병, 사들음병, 잎마름병 등은 동시 방제가 가능한 적용 약제를 혼합하여 뿌려 주도록 하되 동시방제시는 약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농약 혼용가부표를 정확히 지키고 특히 농약을 3종류 이상 섞어 뿌릴 때는 영양제 등의 혼용을 금하도록 한다.

▶이한설 포천시농업기술센터 기술진과장



목회단상

터닝 포인트

우리는 며칠 전 어느 탕아(敬)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말쑥한 아버지를 정신병자로 꾸며 정신요양소로 보내 감금시킨 사실을 보았다. 참으로 물질 앞에는 천룡도 도덕도 쉽게 아주 쉽게 버려버리는 세인(世人)을 보면서 분노했다. 도대체 돈이 뭐대 이렇게 까지 발전(?)했을까.

세계적인 대문호인 빅토르 위고의 삶은 1841년을 기점으로 그의 인생이 BC와 AD로 나뉘게 된다. 원래 그는 주색(酒色)에 빠져 있던 방탕(放蕩)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딸 레오폴디네는 아버지의 타락한 삶을 보다 못해 다음과 같은 유서 한 장을 남기고 강물에 뛰어 들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세요.” 빅토르 위고는 딸의 주검과 유서 앞에서 울부짖었다. “나의 타락한 삶이 딸을 죽였다. 이제 하나님의 품에 거하라라.”

그 후 그는 후생국에 들어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 말년에는 프랑스 국민들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20년 후에는 명작 『무정』을 집필했다. 방탕(放蕩)한 사람이



김창성 내촌교회 목회자

“존경(尊敬)받는 사람”으로 변한 빅토르 위고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하나님을 만난 순간부터 인생이 달라졌다. 이 진리를 사랑하는 딸의 생명을 주고 산 것이다.” 나의 터닝 포인트는 딸의 죽음을 앞세워.

현대인(現代人)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 사랑, 생명의 소중함을 너무 쉽게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다.

지금도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내가 살고 행복해지는 길이다. 이것이 또한 인생의 전환점이다. 성서는 이것을 중생(重生)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리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가르치신다. 문의) 031-532-2489

특별기고

통일 후 토지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⑩

현재의 남북한 관계



서희석 대성직역(67)을담대포사

현재 남북 관계는 국가 대 국가로 보는 견해와 국가 대 국가에 준하는 특수한 관계 그리고 기존의 국가 대 반국가적 불법단체로 보는 견해로 나뉘고 있다. 여기서는 현실이 대립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 관계론(國家關係論)은 남한과 북한의 관계를 국가 대 국가로 개념 지우며 북한을 국제법상의 국가로 인정하여 국제적 법 인격체로서 국제법의 주체임을 주장하는 견해이다. '국가의 권리 의무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Right and Duties of State: 이 협약은 남미 우루과이의 수도 몬테비데오에서 1933년 12월 26일 서명되었고 다음해인 1934년 12월 26일 발효하였다. 당사국은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도미니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미국, 베네수엘라 등 16개 국이고 아직도 효력이 있다.' 제 1조는 국제법상 인격체로서의 국가는 '영구적 인민, 명확한 영역, 정부, 타국과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여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남북한이 1991년 UN에 동시 가입함으로써 UN 헌장의 내용에 따라 회원국으로서의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과 동시에 국제법상 주권 국가로 UN 헌장의 의무를 수락한 국가로 인정됨으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여 남북 간의 관계를 국가 대 국가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남북은 1민족 2체

제적 관계로 개념지워진다.

국가 대 반국가적 불법단체론(國家對 反國家的 不法團體論)은 전통적으로 남한이 1948년 5월 10일 UN의 감시 아래 총선거를 실시하여 헌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출범시킨 UN이 인정하는 한반도 유일의 합법적 정부임을 주장하며, 북한을 국가가 아닌 불법단체로 보는 입장이다. 현재 우리 헌법 제3조의 영토 조항 및 국가보안법 제2조는 대한민국 정부와 상대적 대립을 갖는 북한정권을 '정부를 참정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서의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특별관계론(特別關係論)'은 전통적 남한의 단독 정부론에 대하여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는 견해로 1991년 12월 31일의 남북기본합의서의 서문에서 남북 관계를 국가 대 반국가적 불법단체 관계로 본다.

특수 관계론(特別關係論)은 전통적 남한의 단독 정부론에 대하여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는 견해로 1991년 12월 31일의 남북기본합의서의 서문에서 남북 관계를 통일 지향의 과정에 있는 잠정적 특수 관계(暫定的 特殊關係)로 규정하는 것에 근거하여 남북 관계를 특수한 관계로 본다. 이 견해는 비록 남북한이 동시에 UN에 가입하여 북한이 국제법상 국가임을 인정받았다 해도 남한의 국내법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남북합의서에서도 남북 관계에 대하여 상호 인정, 존중(제1조)한다고 하였을 뿐 남북한을 상호 국가로 인정하는 규정은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동합의서에 대한 국외 비준을 거치지 않은 것은 국제 조약이 아님을 전제로 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동서독 기본조약 제1조의

'정상적인 선린 관계'의 개념을 연방헌법재판소의 '특수 관계' 개념으로 이해한 점과 비교한 견해로서 남북을 특수한 관계로 보고 있다.

남북한은 현재 한반도의 남과 북을 사실상의 지배 영역으로 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많은 관계를 유지·발전시키고 있다. 남북은 UN 동시 가입으로 동일한 회원국으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상호 인정하면서도 하고, 남북합의서에 따라 상대 체제에 대한 상호 인정과 존중을 합의한 바 있다. 물론 이는 국가 대 국가로서 합의가 아니며, 남북합의서에서 '특별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남북합의서에서 '특별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남북합의서에서 '특별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정상적인 선린 관계'의 개념을 연방헌법재판소의 '특수 관계' 개념으로 이해한 점과 비교한 견해로서 남북을 특수한 관계로 보고 있다. 남북한은 현재 한반도의 남과 북을 사실상의 지배 영역으로 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많은 관계를 유지·발전시키고 있다. 남북은 UN 동시 가입으로 동일한 회원국으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상호 인정하면서도 하고, 남북합의서에 따라 상대 체제에 대한 상호 인정과 존중을 합의한 바 있다. 물론 이는 국가 대 국가로서 합의가 아니며, 남북합의서에서 '특별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남북합의서에서 '특별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자유기고

아름다운 비상

5월6일 행사도 많고 봉사도 많았다. 사랑의 헌혈, 암 투병환자 도우기에 헌혈증서 8개 기증, 전국적으로 사랑의 헌혈운동 전개. 금호 아시아나 전직직원(5만여명) 동참, 천안 유관순 체육관에서의

암 투병 전사 불우이웃돕기 성금 2천700만원 직접 모금 전달 감사 또 감사. 고달픈 하루 기운이 다운되었다. 기도 따르며 행운의 여신이 찾아 오면 쌓였던 피곤함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세상이 운통 판관나라로

변한다. 가진 것은 부족하지만 마음은 누구보다도 풍요롭다.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노력만큼 가끔씩은 조 기침소 하느라 출근시간 지각과 요상스럽게도 부부 합동초파대는 봉사하는 날 하고 겹치게 된다. 물론 평생 우리가족을 지켜준 회사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은 절대적 1번인데, 사회생활 하는데 일정이 잡히면 나는 굳이 봉사하는 데로 잡았다.

더러는 소장님의 질타와 꾸중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동우 소장님도 도와주시고(쌀 80kg, 포천동 사랑의 쌀 나누기 동참) 김용신 경인지역 본부장님께서는 포천지점 축하하 왕왕하시어 좋은 일에서 또 달려라 쌀 160kg(20kg 8포대, 40만원 상당)을 내 놓으셔서 신부님 기지리에

있는 남사람 장 애우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전달했다.

준비된 행사는 아니었는데 교육실에 놓여 있던 포천신문 불우이웃돕기 기사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을 절대적 1번인데, 사회생활 하는데 일정이 잡히면 나는 굳이 봉사하는 데로 잡았다.

남사람 56명의 식구가 일용할 양식-비록 얼마 되지는 않지만 틀림없는 기쁨은 생각지 못했다. 24시간의 하루가 너무 짧아서 잠자는 시간을 조금 쪼개본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건강만 채워준다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남고 싶다.



박혜자 주부명예기자단 포천동지역장

칭찬합시다

찌는듯한 더위는 연일 30도를 웃도는 이상기온으로 습도는 기분마저 찜찜하게 하지만 웃음치료사 김순희씨의 사는 모습이 너무나도

웃음치료사 김순희 씨의 사는 모습

아름다워 칭찬하고 싶습니다. 정신이 건강하고 생각이 바른 시간이 주어지면 글도 쓰고 좋은 사진도 찍고 남은 시간을 이용해

서 양로원을 찾아다니며 소외된 할머님들의 친구가 되기도 한다. 자혜원 봉사를 하고서 동 반갈에 나섰다. 5시간 가량을 쉬지 않고 신바람 강의로 들어갔는데 할머님, 할아버님께서 얼마나 즐거워 하시는지 나도 모르게 노래를 따라 부르며 시간 가는줄도 모르고 손뼉을 치며 방안 가득히 웃음꽃이 만발했다. 나 역시 세월이 가면 지금의 할머님의 모습이 아니라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이곳 자혜원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시설이 최상이고 의사선생님, 간호사님, 영양사님이 계시고 안전하고 좋은 식단, 넓은 생활실, 환경도 깨끗하고 도우미직원들도 상냥하고 내 부모처럼 돌봐드린다고 한다.

유쾌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즐거움과 행복을 선사하러 다니는 김순희 지부장님 존경합니다.

포천신문 주부명예기자단 행복천사의 모체가 되어 사랑의 전도사로 하는 일마다 바라는 데로 무궁무진하시길 바랍니다.

봉사는라는 것은 남은 시간에 하는 게 아니고 나를 필요로 할때 베풀어야 한다는 지혜를 김순희 지부장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매사에 적극적이고 사고와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알찬 내일의 선두주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귀자 주부명예기자단 부장

이름다운 생활 ⑩

아토피를 극복하고 싶다

아토피는 대부분 소아에서 증상이 시작되는데 아토피가 피부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토피 피부염이고 호흡기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기관지 천식이나 알레르기성 비염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의 주요증상은 심한 가려움증, 피부건조, 발진, 진물, 부스럼딱지, 비늘 같은 껍질이 있는 피부 증상입니다.

아토피 체질은 근본적으로 고칠 수 없으므로 완치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유발인자를 피하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 조절해나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아토피 극복을 위해서는 약물요법도 있지만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 것입니다. 아래 12가지를 실천하면 아토피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1)거친 음식을 먹어라-가공하지 않은 거친 음식일수록 도움이 됩니다. 거친 음식이라 함은 어떤 음식이든 껍질까지 통째로 먹

는것도 포함됩니다.

2)케일 보리새끼 등을 통해 천연비타민을 섭취하라-특히 비타민C와 A는 손상된 인체조직을 복구시키고 산화를 방지한다. 비타민을 천연상태로 통째로 함유한 식품을 먹는 것입니다. 3)설탕은 아토피에 치명적이다-보조감미료도 문제가 많다. 특히 백설탕은 아토피의 원인물질이기도 합니다. 설탕의 가장 훌륭한 대체품은 현미 오곡조청입니다. 4)클로렐라와 달맞이 종자유를 잘 활용하라.

5)절대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일반식용유, 일반우유와 계란, 양식으로는 기린 생선, 화학조미료, 각종 인스턴트 식품, 캔 음료 등 6)불변의 진리-창문을 열라. 맑은 공기가 아토피의 가장 훌륭한 치료제입니다. 7)새집 출입은 절대엄금, 인테리어도 하지 말 것-시멘트 독은

물론 각종 건축자재에서 유독성 물질이 쏟아져 나옵니다.

8)중고가구를 사서 쓰라.

9)세탁 할아하면 아토피 못 고칩니다-웃도 중고가 좋다.

10)가스렌지 냉난방용품을 잘 대 유의하라-가스기구 사용시 철저한 환기가 필요합니다. 11)화학 생활용품은 내다 버릴 것-각종소독제, 탈취제, 방향제, 습기 제거제, 방충제, 심지어 비누, 샴푸, 치약에 이르기까지 집안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은 아토피의 진원지입니다. 12)집안에 습을 방지하거나 습가루 요법을 실시하면 아토피 진정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위와 같이 우리가 생활에서 몇 가지만 주의한다면 아토피는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혼자 가 아니라 가족모두가 함께 실천해 보셨으면 합니다.

뷰티컨설팅 송명선 010-9757-7648

자유기고

선단적십자 횡단!

세상 인심이 날로 아박해져 가는 이때, 따뜻한 정과 사랑을 실천해준 선단적십자 회원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 6월 19일 뜨거운 여름날, 포천시 특수학교 연합현장체험학습으로 선단적십자학교 장애아동들을 데리고 어린이 대공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때 김순자 회장님과 박정희

총무님, 이영미, 권순덕, 회원님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겁니다. 정신지체아, 청각장애아, 발달장애 아동 및 뇌성마비로 인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아동들인데... 어떤 불편함도 느낄 수 없을 만큼 앞서서 가주시고, 높은 경사로도 거뜬히 올라가시고, 코끼리가 무서워 안들이 간다고 때 쓰며 우는 아이

달래서 데리고 들어가고, 물개 쇼를 보다가 무섭다고 토하는 아이들을 두드리면서 토닥여 주시는 등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들고 밀고, 끌고, 안아주시고...

이런 현장학습 뿐만 아니라 광릉수목원의 자갈밭에 휠체어를 밀어야 할 때도, 실내 수영장에서 아동을 사위시키고, 물에 빠지지 않도록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도와주시는 등 학교 행사 때마다 마다하지 않고, 즐겁게 응해주시니 어떻게 감사함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적십자니까, 당연하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남을 위해 봉사를 한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고, 힘든 내색 없이 즐겁게 일을 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휠체어로 이동하는 동물이거나 “자원봉사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처음엔 아줌마들이 우릴 잘 이끌어 줄 수 있을지 생각했지만, 아줌

마들과 같이 있어도 그런 생각을 안해도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많이 힘들고 어려우셨죠. 힘들다고 내색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힘들지만 저희 같은 아이들을 위해 많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전합니다.

동욱이와 아이들은 그때의 추억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어린이 대공원을 다녀온 아이들인데... 거기가 자원봉사자의 사랑으로 더욱더 훈민한 시간이었으니까요. 선단적십자 회장님 이하 회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신 만큼 복 많이 받으시리라 믿고요. 더불어 건강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서동욱 선단적십자교사

